

## 번역투와 번역자투

류 현 주  
(부산외대)

본 연구의 논점은 기존 번역투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번역투와 번역자투를 과연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그 동안 있었던 번역투 담론을 살펴본 후 이것을 근간으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번역투와 비교되는 번역자투 개념을 검토할 것이다.

번역투라고 하면 해당 사례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국어-한국어 번역 전체로 적용하여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문 외국어의 영향으로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되지 못한 원인이 번역자 혹은 유사한 언어 습관을 가진 일부 번역자들의 번역에서만 발견된다면 이는 번역자투로 불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어색한 우리말 표현 혹은 어법이 여러 번역물에 편재한다면 번역투이고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여 한 번역물에서 지속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어휘와 통사적 구조에 공통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번역자투이다. 번역투는 번역문 언어의 문법 체계에서 발견되는 어색함이나 모호함이라면, 번역자투는 그것이 개개인의 고유한 언어 습관과 번역 방식에서 발견되는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번역투란 번역문의 언어가 기존에 흔히 사용하는 해당 언어와 다른 양상을 보

인다는 점에서 일종의 특수 방언(“dialect Gellerstam 1986)인 셈이고, 번역자투는 해당 번역자만의 언어(idiolect)인 것이다. 그래서 번역투는 처음으로 이 개념을 도입하여 실제 사례 연구를 시작한 켈러스탐이 해당 언어에서 일정한 사람들만의 특수 언어를 지칭하는 접미사 ‘...ese’를 붙여 번역자투(translationese)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언어에서 하나의 규범적 표준어를 정하면 기타 다른 변이 형태들은 방언이 되는데, 이것은 비단 지리적 요소에 국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회 직업 계층 혹은 언어 사용자들 간의 특수 언어 형태를 포함한다. 번역투는 후자쪽에 속하는 것으로 표준어의 변이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번역자투는 이것이 또 세분화된 형태로서 단순한 개인 언어 습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 1. 번역투 선행 연구

일반적으로 번역투는 번역물 목적어에 나타난 원작 외국어의 영향으로서 원래 목적어로 된 창작물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쓴 것을 옮겼다는 흔적(“fingerprints Gellerstam 1986, “mark Steiner 1998, Reynolds 2003)이 번역물 전반에 나타날 때 쉽게 감지되는 것들이다. 그 결과 우리말 원작을 읽어 나가는 것과 같이 매우 자연스러운 어법과 표현을 사용한 번역물에 비해 번역투가 발견되는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가 되므로 번역투는 곧 문제가 있는 번역물로 간주되어 온 것이 상례였다. 국어학자들 사이에서 번역투 없는 우리말 글 쓰기를 권장하거나, 번역회사에서 번역투가 없는 것이 곧 가독성이 높은 우수한 번역물로 인정하는 정서가 팽배하고, 번역투의 사례들을 오류로 지적하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관련 선행 연구들(김정우 2003, 이근희 2005)을 고려하면 번역투는 분명 번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굳이 북유럽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번역투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색한 언어에서 ‘정상적인 “표준 언어’로 정착되는 특성(Bandle외 2005)이 있으므로 실제로 우리말로써 이미 습관으로 고착된 것과 번역투를 구분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번역투를 단순히 우리말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말을 풍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황찬

호 1988, 김정우 2003, 이근희 2005)하지만 분석 자료가 거의 오류에 치중되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예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상세한 예들을 통해 번역투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이근희는 번역투란 “결코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고 하면서 실제 번역투의 순기능과 악기능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양분하였고 다른 번역투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이 경우의 예들을 제시하지 못했다(114-117). 영어 접속사 ‘although’와 ‘though’의 번역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지적하였으나 이는 바른 우리말 부사구이다. 영어 부사 ‘nevertheless’ 혹은 ‘nonetheless’에 해당되는 이 표현은 영어에서와 같이 우리말 문장 서두에서 부사로 쓰이곤 한다. 또한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는 번역투 영어 표현 대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를 우리말 고유 표현으로서 제시하였지만 ‘즐거운 하루’ 역시 ‘좋은 하루’와 마찬가지로 영어 표현 ‘a good day’에서 ‘good’의 또 다른 우리말 번역 표현이기는 마찬가지이고 바른 우리말은 ‘되십시오’가 아니라 ‘보내십시오’이다.

## 2. 개인 언어와 번역투

이근희가 말한 번역투의 순기능에는 문학 언어와 일상 언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주제를 지나치게 번역투의 차원에서 단순화시킨 듯하다. 문학은 일상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문학적 감성을 표현하는 시적 언어(poetic diction)를 사용한다. 시 장르에서 특히 잘 볼 수 있듯이 시인 개인의 독창적이고 감성적인 특별한 언어가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 시적 언어를 사용하는 번역문에서 어색한 우리말은 번역투에 국한시키지 않고 또 다른 층위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레이놀즈(Reynolds 2003)는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이 그리스 비극시를 영어로 옮긴 것을 예로 들어 시적 언어와 번역투를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 그의 주장은 브라우닝의 영역본을 번역문이라는 것을 알고 읽을 때는 번역투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번역문이라는 것을 모른 채 한 편의 영시로 읽는다면 이는 번역자이자 동시에 시인인 브라우닝의 시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번역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단순히 번역투로 규정짓기에는 너

무나도 브라우닝의 시적 섬세함이 잘 발휘된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시어와 번역투와의 차이가 무엇인가(“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language of poetry and ‘translationese’?”)를 화두로 레이놀즈는 (극)시 영역 번역문을 번역투 분석 텍스트로 삼아 시어의 특수성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레이놀즈가 높이 평가한 브라우닝의 번역은 브라우닝의 언어 능력 부족이나 부주의함에서 온 것이 아니다. 브라우닝은 그리스어의 특성을 잘 간파하고 있었고 영어로 된 번역문 의미 또한 전달에 문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놀즈가 번역투라고 표현한 것은 기존의 일반적 개념으로 보면 번역투임에 틀림없으나 사실 번역투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시적 언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브라우닝의 시적 감수성이 심분 발휘된 번역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레이놀즈는 일반적인 부정적 개념의 번역투 성격을 인정하지만(99), 분명한 것은 이러한 기존의 번역투와 번역투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구분하고 소위 문학에서 말하는 ‘시적 진리’를 브라우닝이 구현했음을 시사했다. 그래서 그는 번역투를 지칭할 때 이러한 기존 번역 비평 담론의 번역투를 실제 번역투(“translationese proper 102, 105, “translationese in the full sense 108)라고 표현하였다. 즉, 브라우닝 영역 시의 번역투는 기존 번역투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가장된 번역투 “mock-translationese (105)인 것이다. 결국 이는 기존의 일반적 정의로 보면 번역투라고 볼 수 있지만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 실제 성격은 번역투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이근희의 주장과 같이 만일 이것을 번역투의 순기능이라고 하면 번역투의 문학적(시적) 사용은 모두 긍정적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레이놀즈는 다른 번역본과 브라우닝의 그것을 비교하여 다른 번역작가들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지적하였고 이것이 곧 브라우닝의 시적 번역 언어 사용이 뛰어났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111). 그러므로 무대위에 올려지는 극시의 형태로서 희극과 비극의 장르를 달리하여 극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세심한 문학적 특성까지 고려한 브라우닝 번역 예는 이근희가 주장한 번역투의 긍정적 기능에 머물기보다는 또 다른 층위의 문학과 언어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긍정적 기능을 조명하자면 분석 텍스트는 외국어 시를 우리말로 번역한 사례들을 비롯한 문학 예들을 풍부하게 제시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듯하다.

### 3. 번역투와 언어 간섭

이해하기 힘든 번역물 언어를 가리켜 스타이너는 두 언어가 “마구 뒤섞인 잡동사니(the slipshod farrago) 로 번역투를 표현하면서(332) 상업적 대량 번역의 이러한 ‘날림 번역’에 비해 모든 시인들이 꿈꾸는, 자신의 시어, 즉 고유한 언어 특성을 그대로 담아낸 뛰어난 문학 번역은 높이 평가한 바 있다(338). 스타이너의 번역투 정의는 출발어와 도착어, 두 언어가 혼합된 형태로 일종의 ‘간(間)언어 혹은 상호언어(interlanguage)’로 볼 수 있는데, 더프(Duff 1981)는 어느 한 쪽 언어의 특성이 아닌 양 쪽 모두의 특성을 담고 있는 번역투를 제 3의 언어(“the third language, 12)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편 뉴마크(1991)는 번역의 본질적 특성상 두 언어의 성격을 모두 반영한다는 점에서 번역물의 언어를 간언어로 보는 입장은 같지만(“an imaginative fusion of some features of their own and the foreign language 78), 이를 의미가 모호하고 어색한 도착어 구사를 지칭하는 번역투와는 구별하였다(78-86). 또한 더프에게 제 3언어 개념은 출발어와 도착어 두 언어의 혼합형 (“patchwork 120)을 지칭하는 것인데 비해 뉴마크는 이것을 보통 번역투에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제 3언어 간섭(third language interference 86) 이라는 용어로 칭하였다.

일반적으로 번역투는 우리말 글쓰기에서든 번역에서든 지양해야 할 오류이지 문학적인 감상적, 극적 효과를 보기 위해 용인되어야 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합의점은 도출된 듯하다. 또한 번역투의 원인 역시 번역자의 부주의함이나 언어 능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의미가 잘못 전달된 오역과는 다르다는 것도 일반적 견해이다. 이렇게 번역투는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이 대세임으로 뜻하지 않게 번역물을 통해 얻는 긍정적 효과에 집중하기 위해 뉴마크는 ‘(언어) 간섭(interference)’의 개념을 제시하였다(78-86).

간섭 현상은 외국어 학습자가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외국어와 모국어가 혼합된 형태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가 우리말의 간섭으로 영어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 “콩글리시(Korean+English=Konglish, Broken English) 를 구사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외국어 교육의 간섭 현상은 주로 ‘모국어의 간섭’을 의미하는데 반해 번

역에서는 모국어의 외국어에 대한 간섭뿐 아니라 반대 현상, 즉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모국어가 외국어식으로 표현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뉴마크는 간섭을 번역에 확대하여 번역투와 간섭을 구분하였다. 셔틀워스(1997)와 마찬가지로 뉴마크는 도착어를 창의적으로 풍부히 만들 수 있고 특히 그것이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언어의 긍정적 성격을 감지하였다. 그러나 셔틀워스는 번역투가 웃음 유발 효과("comic effect 188)가 있다고 지적한데 비해, 뉴마크는 언어 간섭을 재담(pun), 농담(jokes) 효과를 주는 유쾌한("hilarious 79) 작용으로 파악한 점이 다르다.

#### 4. 개인 언어와 번역자투

인간은 보편적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개인마다 독특한 언어 습관이 있다. 앞에서 살펴 본 선행 번역투 연구 비평에 비추어, 우리 언어 습관이 된 번역투와 실제 출발어-도착어 비교를 통해 나타난 번역투와의 대조, 그리고 문학 언어와 일상 언어, 번역투와 시적 언어라는 또 다른 층위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지만 비교 개념들을 상호 구분 짓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번역투라는 특수 언어 형태를 번역에 나타난 개인 고유 언어인 번역자투와 구분하는 것은 비교적 명쾌하게 번역투 논의를 확대시킬 수 있다.

개인 고유의 언어 특성은 비단 문학적 시학 언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 습관에도 나타난다. 순수 문학 작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장르의 번역이든지 번역자는 기본적 언어 능력은 물론 풍부한 감수성과 상상력을 동원해 외국어를 유창하게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풀이해 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교적 정보를 전달하는 비문학적 텍스트 번역문에서 번역자의 상상적 언어 창조성과 나름대로의 개별적 언어 습관을 구별하기가 용이하다. 이러한 번역자(translator) 개인의 고유한 언어 특성은 이를 나타내는 접미사(-ese)를 붙여 번역투와 비교하여 '번역자투(translatorese)'로 칭한다. 광의의 번역투에는 번역자투가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번역자투가 곧 번역투는 아니다. 번역투와 마찬가지로 번역자투가 곧 의미 오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되, 자연스러운 우리말 어법에 어긋나거나 혹은 다른 번역자들에게서 찾아 볼 수 없는 독

특한 언어 방식이 도착어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 4-1 번역자투에서 비롯된 번역투

우리나라의 번역투 담론은 대부분 소쉬르가 주창한 구조주의 언어학에 근간을 두고, 번역문 언어의 음성 체제, 문법 체제, 의미 체제 중(Fawcett 1997)에서도 특히 문법 체제인 통사적 구조와 어휘 형태의 체계적인 특성에 대해 실제 번역투 사례를 분석하였다. 많은 기존 연구 사례 분석에서 이미 문법 체계 중 어휘, 문법, 문장 구조에 대한 것이 많았으므로 여기서는 우선 자주 다루지 않은 문장 부호만을 예로 들어 번역투와 번역자투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미국 리차드 칼슨(Richard Carlson)의 저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Don't Sweat the Small Stuff*) 연작 번역본은 우리나라 몇몇 출판사<sup>1)</sup>에서 앞 다투어 출시되었다. 이 연작 번역물은 동일한 저자의 작품을 출판사마다 다른 번역자들이 참여했고 심지어 같은 원저서에 대한 번역물이 연도를 달리하여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sup>2)</sup> 서로 비교하며 번역자투를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 텍스트이다. 번역자에 따라 문체가 다르고(문어체/구어체, 존칭/비존칭), 번역투 및 번역자투가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보아 출판사의 구체적인 번역 지침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출판된 번역물 중 번역자투가 확연히 드러난 세 번역물을 주 비교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번역자투에서 비롯된 번역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세 출판사 중 특히 <도솔>에서 출판된 해당 번역물은, 다른 두 출판사의 번역물들에서는 거의 영어 문장 부호가 발견되지 않은 데 비해, 원작의 문장 부호를 그대로 우리말 번역에 쓰거나<sup>3)</sup> 혹은 번역자가 아무 기준 없이 임의로 우리말 옆에 해당 영어를 쓰고 또 필요 이상으로 홑따옴표를 사용하여 특별한 용어임을 강조하였다.

영어에는 우리말 어법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괄호((parenthesis)), 줄표

1) 창해, 창작 시대, 도솔.

2) 창작시대에서 출판된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1998, 정영문 옮김(이하 번역물A로 표시), 도솔에서 출판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습관 바꾸기편』 2004, 강정 옮김(이하 번역물B로 표시).

3) 도솔에서 출판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직장인편』 2005, 신혜경 옮김(이하 번역물C로 표시).

(--dash), 쌍점(:colon)이 많고, 다만 글쓴이에 따라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칼슨의 저서 또한 예외가 아닌데, 특히 칼슨은 괄호와 줄표를 매우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ST1:Just for fun. Agree with criticism directed toward you  
(Then watch it go away.)(번역문C 151)4).

TT1:내게 오는 비난을 재미삼아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 비난은 금방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ST2: See the glass as already broken (and everything else too).  
(번역문 C156).

TT2: 유리를 이미 깨어진 것으로 여겨 보세요(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 어법에도 생각의 흐름에서 갑자기 생각난 것을 보충하거나 부연 설명을 할 때 가끔 괄호와 줄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저는 전화벨을 꺼 놓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동안에는 사전에 약속된 전화나 비상전화(실제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더군요)만 골라 받습니다.....그것은 당신이 실제로 더 많은 일을 해내는(그리고 전화 왔던 이들에게 나중에 다시 연락하는)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역물 C 31-32)

여기서 내가 배운 것은 말의 궤방이 야기할 잠재적 실패--일을 제대로 끝낼 수 없겠군, 생각의 고리를 놓치고 말겠군, 오늘 글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 (번역물 B 49)

그러나 이것이 위의 번역문에서 영어처럼 많으면 글을 자연스럽게 읽어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원문 영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우리말 원문 안에 풀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하게 이렇게 영어 문장 부호가 많다면 이것은 번역자투가 곧 번역투가 되는 사례가 된다. 번역물 C에서 번역자는 원문에서 칼슨이 자주 사용하는 줄표 모두를 우리말에도

4) 원문에 일부 항목은 영어 원문과 우리말 번역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대로 옮겨 가독성이 저하되었다. 위의 괄호 사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래 예 문들에서도 문장 부호는 우리말 어법에 맞게 모두 마침표로 바꾸어도 원문의 설득력 발화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말 글쓰기에 더 가깝다.

-줄표:

물건을 팔 때,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 볼 수도 있겠지요--윤리와 이익의 균형을.....(71)

-쌍점: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당신도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없는 것이 분명함에도 .....(175).

위에 열거한 문장 부호 번역투는 번역자가 의식적으로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영어의 그것을 우리말 번역본에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표면으로 드러난 번역자의 무의식적 언어 습관이자 번역 방식인 번역자투이다. 그 원인은 번역자가 우리말과 영어의 문장부호 차이를 모르고 있거나(언어 능력 부족) 혹은 알아도 이 점을 잊거나 또는 소홀히 한 것일 수(부주의함)이고, 아니면 아예 이것이 본인의 언어 습관으로 고착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데 있다.

#### 4-2 번역자투에서 비롯된 어색한 우리말 어법

번역자투는 번역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자가 글을 읽어 나가는데 불편함을 주는 가독성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잘 읽히는 번역물은 내용 이해가 쉬운 것은 기본이고 쉼표나 마침표만을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기타 줄표, 괄호, 따옴표를 비롯한 문장 부호와 외국어 병행 표기 사용을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번역물 B 번역자는 번역물 C의 번역투와 비교할 때 원문에 있는 쌍점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괄호와 줄표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므로 문장부호의 번역투는 없는 편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말에 영어 사용이 많고, 이유 없이 우리말과 영어 병행 표기를 하며,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단어를 불필요하게 괄호로 삽입하거나 특별 의미나 용어를 강조하기 위한 홑따

음표를 많이 사용한다. 외국어 남용은 비단 이 번역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고질적으로 우리말 순화를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학 관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번역자의 외국어 남용 우리말 습관은 외래어와 외국어 사용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인데, 이는 섬세해야 할 번역자의 언어 감각에 악영향을 미쳐 번역문에 전반적으로 난삽한 문구가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습관적 영어 남용과 풍부한 우리말 구사력은 서로 반비례 한다는 진부한 진리를 새롭게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같은 원문에 대한 번역물 A와 번역물 B를 비교하면 이 점을 잘 알 수 있다(밑줄은 논자의 것).

**번역문 A:**

- 고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등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11)
- 삶의 ‘다른 방식’에는 ‘대응’이라는 낯은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사태를 새롭게 바라보는 습관을 키우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12).
-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때, 당신은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15).

**번역문 B:**

- 이러한 (과민) 반응은 자신에게,....(10)
- 이 다른 삶의 방식도 ‘반응 reaction’이라는 낯은 습관을 ‘전망 perspective’이라는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11).
- 이 아이디어를 삶 속에 녹여 낼 수만 있다면 ‘보다 평화롭고 사랑스런 정신’을 창조하는 작업에 손을 대는 셈입니다(15).

번역학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영어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독자라면 번역물을 읽었을 때 계속되는 어색한 우리말 어투를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영어 원문 문법을 추측할 수 있다. 『시크릿』(*The Secret*)<sup>5)</sup> 번역자는 다른 번역물에서 거의 문제점이라고 발견하지 못했던 문장 종결 어미 처리에 번역자투를 보인다(아래 예문의 밑줄과 굵은 글씨체는 논자의 것). 이는 특히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있는 문장을 우리말로 옮긴 것에서 두드러진다.

5) ST는 Rhonda Byrne가 쓴 *The Secret* (2006, New York: Simon & Schuster), TT는 김우열이 번역한 『시크릿』(2007, 살림출판사).

우리말이나 영어의 경구와 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는 선언적 표현이거나(예1), 긴 문장을 이해하는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별도의 문장으로 독립할 때(예2) 문장 종결 어미는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예1:

So choose for You, because you're the only one who can(151).

스스로 선택하라. 선택할 사람은 당신뿐이니(180).

예2:

“Are the results you have in your life what you really want? And are they worthy of you? If they're not worthy of you, then wouldn't now be the right time to change those? Because you have the power to do that(165).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 그것들이 내게 가치가 있는가? 대답이 ‘아니요’라면, 지금이 이를 바꿀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당신에게는 그렇게 할 힘이 있으니까(195).

그러나 여기서 번역자투의 문제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번역자의 고질적 습관에서 나온 것으로 가독성을 해친다는 데 있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영어 원 문장을 우리말로 재구성하는 번역자의 인지 흐름이 그대로 우리말에 반영된 것이어서 독자들 누구나 이 텍스트가 우리말 원저서가 아니라 외국어를 번역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So you don't want to negate medicine. Every form of healing has a place(126).

그러니까 약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모든 치료 방식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에(154).

No matter what you might have manifested, you can change it . . . with one small positive thought and then another(127). 어떤 현상이 나타났든지 바꿀 수 있다. 작지만 긍정적인 생각 하나로(155).

There are no limits to what you can create for You, because your ability to think is unlimited!(150) 당신이 자신을 위해 창조할 수 있는 것에 한계란 없다. 생각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에(179).

Everything is made up of the exact same thing, whether it's your hand, the ocean, or a star(155). 세상 만물은 정확히 동일한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당신 손이든, 바다가든 혹은 별이든(185).

## 5. 결론: 후속 연구

그 동안 번역투는 하나의 가설이 아니라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번역물 분석을 통해 경험과 관찰에 의거하여 담론이 형성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투에 대한 기존 담론의 비평적 시각에서 출발하여 번역자 개인의 언어 습관 사례를 통해 번역자투에 대해 살펴보았다. 번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번역투와 번역자투는 모두 자연스러운 글읽기와 글쓰기를 저해하는 부정적 현상이다. 켈리스탐이 번역투 개념을 소개한 것은 ‘출발어가 도착어에 미치는 체계적인 영향’(88)을 찾아내기 위함이다. 체계적인 영향이란 도착어의 일반적 체계적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동안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번역투 사례들을 보면 그 대표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 때 앞의 번역(자)투 예가 보여 주듯 비교적 좀 더 분명한 해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번역자투 개념의 활용이다. 번역투 개념이 선행 연구되지 않았다면 번역자투 개념도 등장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결국 번역자투 개념에 대한 차후 연구 확대 진작을 위해 그 근간이 되는 번역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구가 심화될 필요가 있겠다.

첫째, 코퍼스 접근법을 이용하여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긴 번역물과 우리말 원작에 나타난 번역투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번역학에서의 번역투 담론과 우리말에 고착된 번역투를 상호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예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해 온 ‘한 잔의 술’이 자연스럽게 우리말 표현으로 수용된 사례와 번역학에서 오류로 지적되는 번역투는 구분해야 하고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실제 분석 사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문학 번역 작품,

그 중에서도 특히, 시 번역에서 번역(자)투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분석한 후 그것이 원문 작가와 번역자의 독특한 시적 감성의 언어 선택이었는지 탐구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이는 번역학만으로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는 문학의 내재적 특성을 감안하여 번역학 이론과 문학 이론과의 학제간 연구가 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된다. 셋째, 번역투는 어색한 번역, 다시 말해, 바람직하지 못한 번역으로서 번역 품질이 낮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는데,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잘된 번역에는 과연 번역투가 거의 없을까 하는 문제이다. 넷째는 주로 번역자투 개념과 셋째 제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소한 것일 수 있으나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번역학자들과 번역 논문의 번역투에 대한 자기 성찰적 검토가 요구된다. 다른 학문 분야의 논문 제목에 비해 번역학 논문 제목에서 특히 ‘...있어(서),’ ‘A언어로부터의 B언어(로의) 번역’과 같은 번역투가 유독 눈에 많이 띄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Bandle, Oskar. Kurt Braunmüller, Lennart Elmevik & Gun Widmark. 2005. *The Nordic Language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the history of the North Germanic languages*. New York: Walter de Gruyter.
- Duff, Alan. 1981. *The Third Language: Recurrent Problems of Translation into English*. Oxford: Pergamon P.
- Fawcett, Peter. 1997. *Translation and Language*. Manchester: St. Jerome.
- Gellerstam, M. 1986. “Translationese in Swedish Novels Translated from English. in Wollin & Landquist (eds.) *Translation Studies in Scandinavia*. Proceedings from the Scandinavian Symposium on Translation Theory. Lund, Sweden.
- Newmark, Peter. 1991. “The Virtue of Interference and the Vices of Translationese. in *About Translation*. New York: Multilingual Matters. 78-86.
- Nida, Eugene A. and Charles R. Taber. 1982.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Netherlands: United Bible Societies.

- Reynolds, Matthew. 2003. "Browning and Translationese. in *Essays in Criticism* 53(2). Oxford: Oxford UP. 97-128.
- Shuttleworth, Mark & Moira Cowie.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 Steiner, George. 1975. *After Babel: Aspects of Language and Translation*. Oxford: Oxford UP. 332-338.
- 김정우. 2003. 「국어 교과서의 외국어 번역투에 대한 종합적 고찰」. 『배달말』 33권. 마산: 배달말학회. 143-167.
- 이근희. 2005a. 「영한 번역에서의 번역투 연구」. 세종대 영문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5b. 『번역산책』. 서울: 한국문화사.
- 황찬호. 1988. 「외국어식 구문」 『국어 생활』 14권. 서울: 국어연구소. 46-58.

### 분석 대상 텍스트

- 론다 번. 2007. 『시크릿』. 김우열 옮김. 서울: 살림출판사.
- 리차드 칼슨. 2005.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직장인편』. 신혜경 옮김. 서울: 도솔.
- 리차드 칼슨. 2000. 『행복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는다』. 박혜원 옮김. 서울: 창해.
- 리차드 칼슨. 2004.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습관 바꾸기편』. 2004, 강정 옮김. 서울: 도솔.
- 리차드 칼슨. 1998.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정영문 옮김. 서울: 창작시대.
- Byrne, Rhonda . 2006. *The Secret*. New York: Simon & Schuster.
- Carlson, Richard. 2000. *Don't Sweat the Small Stuff for Teens*. New York: Hyperion.
- Carlson, Richard. 1999. *Don't Sweat the Small Stuff at Work*. New York: Hyperion.
- Carlson, Richard. 1997. *Don't Sweat the Small Stuff... and it's all small stuff*. New York: Hyperion.

[Abstract]

## Translationese and Translatorese

Ryu Hyunju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resent paper addresses translationese and translatorese. This issue is raised with the two points of departure: Can translatorese be considered identical with translationese?; Can translationese exemplified in most of previous studies be generalised as “a systematic influence of STL on TTL ? The research shows that this is not always true with the two case observations--Korean translations of *Don't Sweat the Small Stuff* series(by Richard Carlson) and *The Secret*(by Rhonda Byrne)--in point.

In a broad sense, translationese includes translatorese but translatorese does not always result in translationese, a “fingerprint or “mark of source text language on target text language. Translationese is a kind of dialects while translatorese is idiolect. With translationese becoming a part of normal standard language rapidly over time, some argue that it can make a creative, poetic contribution to enriching STL. This argument brings about another issue of poetic diction realized by poets' idiolects as well shown by Reynolds' essay, “Browning and translationese. As translationese usually carries negative connotation, Newmark uses a different term, ‘interference,’ to suggest some positive function of interlanguage. Meanwhile, translatorese always refers to as awkward uses of language in translated texts which are hardly found in non-translated texts.

▶ Key Words: Translationese, Translatorese, Language Interference, Poetic Diction, Dialect, Idiolect

류현주

부산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교수

juruk2k@pufs.ac.kr

관심분야: 통역·번역학, 영미비평

논문투고일: 2009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09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12일